

격주간 '브레일 타임즈' 제701호

등록번호 서울 다-05099

발행일 2012년 12월 10일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겸 편집인 최동익

전화 02-6925-1121 (담당 노상미)

팩스 02-6925-1117

주소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

## 목차

포커스: 시각중복장애 자녀의 어머니가 느끼는 행복도 중요하다 / 정지훈(여주라파엘의 집 원장)

### 장애인계 뉴스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시행 앞두고 '웹 & 모바일 접근성 세미나' 열려
2. 중앙선관위, 시각장애 유권자를 위한 후보자 공약 음성서비스 개시
3. 수원시,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추가 설치
4.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Green Healing-시각장애인시설 고치기'
5. 시각장애, 뇌병변장애를 딛고 한국은행에 최종합격한 박기범 씨
6. 국내 첫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 소송 청구
7. 2012대선 장애인 공약, 이제는 실천만 남았다
8.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 열려...송파구청, 충남지방경찰청 등 수상

기획: [한시련 성명서] 장애인방송 의무화를 용두사미로 만들지 마라!

독자마당: 내 아들이 나처럼 태어난다면 / 서해웅(서울 은평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11월 16일~11월 30일]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69): '할리우드 액션'과 '올인'의 순화어

~~~~~

## 포커스

시각중복장애 자녀의 어머니가 느끼는 행복도 중요하다

정지훈(여주라파엘의 집 원장)

필자는 지난 20년간 시각중복장애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며 시각중복장애인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고민해왔다. 시각중복장애 당사자

들은 제도권 아래 과거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향상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각중복장애 당사자에게만 관심을 가져오던 사이 시각중복장애 자녀를 둔 부모, 그중에서도 특히 어머니들은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모회라는 모임을 결성하여 매달 1회 모임을 갖고 부모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오고 있다. 이 모임을 통해 시각중복장애 자녀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쪽이 어머니이고 그렇다보니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양육부담을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회 소속 어머니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한 결과 어머니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 참여를 늘리기 위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양육부담을 줄이는 것이었다. 지역사회에서 시각중복장애인 가족을 위해 일시적인 대리양육 서비스와 활동지원제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기관의 서비스 질, 경제적 능력의 차이로 인해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필자는 ‘마음대로 아플 수도 없다’는 시각중복장애자녀 어머니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고자 이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로 삼기도 했다.

연구를 통해 시각중복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더니 정부의 지원서비스보다 가족의 월수입, 어머니의 교육수준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정신건강, 사회적 능력, 생활의 활력 등에도 부정적이었다.

시각중복장애 자녀의 어머니들이 양육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이 삶의 질과도 관계가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그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필자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시각중복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들을 양육하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어머니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발 연구·교육, 의료적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시각중복장애인 가족을 위한 조기 개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시각중복장애인과 가족 모두를 위한 활동보조지원서비스 및 돌봄·가사지원서비스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또한 시각중복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 서비스와 지역·국가적 차원의 장·단기 주간보호센터 및 직업재활센터, 시각중복장애인 가족을 위한 전문센터 등도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각중복장애인의 어머니가 자녀로 인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다면 이는 어머니와 자녀 모두에게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다. 시각중복장애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 가족에게 보내는 따뜻한 관심이 시각중복장애인 복지의 첫걸음이 되리라 본다.

~~~~~

## 장애인계 뉴스

###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시행 앞두고 ‘웹 & 모바일 접근성 세미나’ 열려

민주통합당 최동익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시행 대비-웹&모바일 접근성 전략 세미나'가 지난 12월 1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됐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웹 접근성 의무대상이 2009년부터 해마다 확대되어 왔으며, 내년 4월부터는 그동안 유예되어 왔던 모든 법인, 공무원 및 교원 연수원 등도 의무대상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금융, 쇼핑 등과 관련한 민간영역에서도 웹 접근성에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오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민간영역의 홈페이지 관리자, 개발자 등이 웹 접근성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궁금해 하는 관련 법, 제도, 동향, 웹&앱 접근성 세부지침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조사과 조형석 팀장의 '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시행에 따른 웹 접근성 관련 법 제도 및 대응책'을 주제로 한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 현준호 수석연구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위운정보기술 김광곤 팀장의 '웹 접근성 전문가 심사 시 나타나는 주요 위반사례'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에서 실시한 '2012년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실태조사결과'와 더불어 우수사례로 선정된 보건복지부 사이트의 웹 접근성 개발 과정의 경험과 노하우가 공개됐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기관의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 2. 중앙선관위, 시각장애 유권자를 위한 후보자 공약 음성서비스 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한, 이하 중앙선관위)는 지난 11월 29일부터 시각장애 유권자를 위한 '대선 후보자 10대 공약 음성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 유권자들도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http://party.nec.go.kr>)에 접속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을 음성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각 후보자의 10대 공약을 음성으로 서비스함으로써 그동안 공약정보를 얻는데 제약이 많았던 시각 장애인 유권자도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3. 시각장애, 뇌병변장애를 딛고 한국은행에 최종합격박기범 씨

시각장애와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는 박기범 씨(23세)가 1급 중증장애인으로서 처음 한국은행 일반 공채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08학번인 박 씨는 망막색소변성증으로 1m 앞의 물체를 희미하게 윤곽정도만 볼 수 있을 정도이며, 중학교 2학년 때 뇌출혈로 인해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되어 왼쪽팔과 하반신 사용이 자유롭지 못 하다.

그런 그가 장애인 특별전형이 아닌 비장애인들과 함께 경쟁하는 종합기획직 일반 공채시험에서 33.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한국은행 신입사원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일반 공채에서 중증장애인이 합격한 것은 한국은행 창립 62년 만에 최초이며, 박 씨의 나이는 올해 평균 합격연령(25.5세)보다도 1.5세나 어리다.

장애로 인해 시험문제를 빨리 읽을 수 없었던 그는 암기력과 암산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으며, 전남 화순 능주고등학교 입학 당시 전교 180명 가운데 160등이던 성적을 전교 5등까지 올렸으며, 대학교 졸업 평균학점은 3.9점으로 교양교양과목을 제외한 경제학 관련학점은 모두 A학점 이상을 받았다.

박 씨의 아버지는 전남 화순에서 염소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박 씨는 IMF 외환위기 때 사업에 실패하고 염소를 기르는 아버지를 통해 금융 산업, 특히 중앙은행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한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대응하는 일에 일조하고자 한국은행에 지원했으며, 취업준비 때도 다른 기관이나 회사는 아예 지원도 하지 않고 한국은행 단 한 곳에만 응시했다.

그는 “늘 주변에서 도와준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에게 감사하다”면서 합격하기까지 힘이 되어 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박 씨의 사정을 고려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할 것이며, 추후 선발할 일반사무직 15명 가운데 3명을 장애인에게 할당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4.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Green Healing-시각장애인시설 고치기'

스탠다드차타드금융그룹과 한국해비타트는 지난 10월부터 두 달간 ‘Green Healing-시각장애인시설 고치기 사업’을 진행했다.

해비타트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는 국제적인 자원봉사운동 단체로,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한국해비타트운동본부(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가 공식 발족되어 1995년에 건설교통부 산하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등록되었다. 한국해비타트는 이번 사업을 주관했다.

열악한 시각장애인 시설을 수리해 시각장애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안락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에는, 스탠다드차타드금융그룹 임직원들이 직접 공사작업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가나안의 집, 소망복지원, 소망원, 새빛요한의 집 등 경기지역에 위치한 시각장애인 시설 4곳에서 방수·난방공사, 피크닉테이블·운동시설 설치, 도배, 장판교체작업 등 취약한 공간의 전문보수공사는 물론 야외활동, 체력단련을 위한 벤치·기구설치 등의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번 ‘Green Healing-시각장애인시설 고치기 사업’을 통해, 거주하고 생활하는 곳을 넘어

시각장애인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 5. 수원시,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추가 설치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과 편의증진 도모를 위해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추가 설치했다고 지난 11월 27일 밝혔다.

시는 평소 보행량이 많은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 7곳 인근의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해 기능시험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용을 시작했으며, 총 30대의 음향신호기가 추가로 설치되어 앞으로는 관내 57개소에서 총 214대의 음향신호기를 운영하게 된다.

박래현 수원시 교통행정과장은 “공공시설 및 문화시설 주변에 음향신호기를 점진적으로 확대·설치해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도모하겠다”며 “관내운영 중인 음향신호기의 수시점검 등 정상운행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6. 국내 첫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 소송 청구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차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11월 29일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장애인팀,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을 소홀히 한 대한항공, 한국전력병원 등 4곳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곳은 대한항공, 한국전력병원,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서울시장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곳으로, 5천만 원씩 총 2억 원을 청구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부터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많은 공공기관, 기업, 각종 시설의 홈페이지는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로 제작·운영되고 있으며, 웹 접근성 준수율도 매우 낮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 등에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 요구를 해왔으며, 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인권문제를 고민하는 여러 단체들과 함께 2011년에 웹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주요 기업, 단체 등에 접근성 보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업, 단체들이 현재까지 홈페이지에서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여전히 인터넷 상의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있어,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는 기업, 시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 7. 2012대선 장애인 공약, 이제는 실천만 남았다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장애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장애계 현안 12개를 공약으로 정하고 이를 대선 후보들이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총선에서 시작된 장애계의 정책선거가 대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애계 단체들은 지난 11월 28일 KBS스포츠월드 제1체육관에서 「제18대 대선 장애인정책 공약선포식」을 갖고 장애인 12대 요구공약을 발표했다.

2012년 대선 후보들에게 바라는 장애계 12대 요구공약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등급제 폐지: 현재의 장애인복지법 폐기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서비스 상한제한 폐지하고 최중증장애인에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제공

△ 발달장애인법 제정: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지원체계와 권리확보를 위한 ‘발달장애인법’ 제정

△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개선: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농아인의 언어적 권리 확보를 통한 농교육 환경 개선

△ 장애인연금의 인상과 대상의 대폭 확대: 2017년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10%인상, 부가급여 24만원으로 인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80%까지 대상 확대

△ 저상버스 100% 도입과 특별교통수단 확충으로 장애인이동권 보장: 시내버스 저상버스 100% 도입, 시외버스·고속버스·마을버스·공항버스 등의 저상버스 도입과 법적근거 마련

△ 장애인의 고용의무 활성화로 일자리 확대: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 최저임금 적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고용 미달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특수교사 1만 명 확충하여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 공공임대의 확대를 통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 공공임대주택 확대, 무상임대 전세주택 제공사업 전국 확대 및 제도화

△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질환의 예방 및 접근성 등 보장할 수 있는 장애인 건강 및 보건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장애인 문화예술 및 체육의 활성화 방안마련: 관련법률 개정, 공공기관 운영·위탁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 접근환경 100% 마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수급권 탈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비현실적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이번 장애계 요구공약이 다행히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대선 후보들이 이를 수용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협약을 맺는 등 실제 결실을 거두고 있다.

11월 23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가장 먼저 장애계 12대 요구공약을 수용했으며, 11월 30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정책협약식을 갖고 공약을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무소속 김소연 후보 등도 공약을 수용함으로써 대다수의 대선 후보가 장애계 요구 공약을 전면 수용하게 되었다.

이번 공약이 공약(空約-헛된 약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 이후 당선자가 이를 장애인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 8.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 열려...송파구청, 충남지방경찰청 등 수상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2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총 5개 부문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국회의장상 기초자치부문), 충남지방경찰청(국가인권위원장상 공공기관부문), 광주광역시(인권정책), 장애여성네트워크(인권실천), 함께걸음(인권매체)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각 수상자를 살펴보면, 기초자치부문 수상자인 서울시 송파구청은 전국 최초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을 구성해 장애 당사자와 개별면담, 정기적인 실태조사, 인권교육을 실시했으며, 공공기관부문 수상자인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방경찰청 최초로 '노인 장애인계'를 신설하여 장애인 치안보호활동에 주력해왔다.

인권정책 부문 수상자인 광주광역시는 아시아도시 최초로 광주인권헌장을 선포하고 광역시 중 가장 먼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조례를 제정·시행했으며, 인권실천부문 수상자인 장애여성네트워크는 장애여성들이 소통할 수 있는 영역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도서출간으로 장애여성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파했다. 인권매체부문 함께걸음은 창간 이래 23년간 지속적으로 소외된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변승일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장애인 차별과 사회통합,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온 많은 분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기념사를 전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장애인인식개선 웹툰 공모전 당선작에 대한 시상과 장애인인권을 주제로 한 새도우아트 축하공연 등이 함께 진행됐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UN이 천명한 장애인권리선언(1975)과 대한민국 정부가 선포한 장애인인권헌장(1998)의 이념을 반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구체적 실천을 이루어 낸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다. 인권정책, 인권실천, 인권매체 부문은 각각 상금 1천만 원과 상패가 전달된다.

~~~~~

## 기획

### [한시련 성명서] 장애인방송 의무화를 용두사미로 만들지 마라!

#### 품질보증 없는 장애인방송 의무화는 장애인의 분노를 부를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방송의무화는 우리나라 텔레비전 방송 50여년 역사상 장애인들에게 보여준 최초의 배려이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화면해설, 자막·수화 방송 등은 시·청각장애인에게 텔레비전 보는 재미를 알게 해준 획기적인 변화였다.

특히 화면해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의 손으로 지키고 가꿔 왔으며 춥고 배고픈 세월을 이기고 오늘에 이르렀다. 당시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던 화면해설이었다. 제작 스튜디오가 없어 셋방살이 하듯 스튜디오를 대여했고 더 좋은 화면해설을 위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전문 인력 양성에 매진해 왔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화면해설방송을 시작하도록 만들기 위해 온 몸으로 부딪혀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가 발표되자 이러한 화면해설이 위기를 맞고 있다. 화면해설이 무엇인지도 모르

는 사람들이 화면해설방송, 화면해설영화 등 화면해설과 관련한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하고자 하는 의욕에는 감사드린다. 그러나 화면해설을 돈 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데는 분노한다. 화면해설은 그냥 단순한 설명이 아니다.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정서와 인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의 특성에 맞게 시각적 요소 들을 영상언어로 전환시키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다. 그럼에도 많은 미디어 영상 제작사들이 시각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앞 다투어 화면해설을 할 수 있다며 방송사업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방송사업자들 역시 저가 경쟁으로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주고 화면해설에 대해 알려고 하기 보다는싼 값에 그냥 정부의 의무화고시를 준수하려고만 하는 듯하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분노한다. 화면해설방송은 시각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지 방송사업자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준수해야 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다.

화면해설의 소비자로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화면해설을 지키고 가꾸어온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화면해설이 돈 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무성의하게 만들어지는 것에 분노하며 화면해설방송의 시행에 있어 전문성보다는 가격 경쟁력 만을 생각하는 방송사업자들의 태도를 규탄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의무화 고시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지 마라! 방송사업자들이 장애인방송 고시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장애인방송이 정말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제작되어지는지 방송의 품질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100만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표하여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화면해설방송 의무화고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화면해설방송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라!
- 장애인방송위원회는 화면해설방송제작환경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장애인방송 의무 방송사업자들은 화면해설방송제작에 있어 가격이 아닌 전문성을 먼저 확인하라!

~~~~~

## 독자마당

### 내 아들이 나처럼 태어난다면

서해웅(서울 은평구)

3호선 동대입구 하행방향 열차 9-3칸에서 내려 오른쪽으로 꺾으면 계단이 나온다. 계단을 올라가 유도블록을 따라 걸어간다. 교통카드를 찍고 나가 다시 오른쪽으로 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6번 출구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돌아 길을 따라가면 장충공원이다. 공원을 가로질러 가다보면 다시 계단이 나오고 한참 계단을 오르면 드디어 남산 산책로가 나타난다. 일요일마다 남산을 오르는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처음 산책로를 알게 된 것은 최 선생님 덕분이었다. 시각장애인들도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곳이라며 이 산책로를 소개해 주셨다. 예전에 이곳은 남산순환도로였다고 한다. 2차선 도로 한쪽에는 폴리우레탄을 깔고 길 가운데 유도블록을 함께 설치하여 시민 모두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언제부터인가 이곳이 참 편안하다. 서울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많다. 어느 곳 하나 사람들을 피하느라 편히 다닐 수 있는 곳이 없다. 유일하게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는 장소가 서울 하늘 아래 이 곳 뿐인 듯하다. 폭신한 길을 따라 걷는다. 가족으로 보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나쳐 간다.

앞에서 누군가 지팡이로 유도블록을 때리며 저만치 걸어가고 있다. 가을로 접어들어 바람은 쌀쌀하지만 아직 한낮의 햇볕은 따갑다. 한 발 두 발 발을 뗀다. 발걸음은 가볍고 공기는 상쾌하다. 선글라스를 껴서 그런지 그늘에서는 갑자기 캄캄해졌다가 햇볕으로 나오면 밝아진다. 눈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 선글라스를 쓰기는 했지만 아직 좀 어색하다.

걷다가 보면 유독 시각장애인들이 눈에 들어온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고 더러는 활동보조인과 함께 걷는다. 나도 처음에는 활동보조인 분과 함께 왔었다. 길이 익숙해지면서 지금은 혼자서도 잘 다닐 수 있게 되었다. 혼자서 정신없이 길을 걷다가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걷는 게 어찌 보면 꽤 지루한 일이다. 게다가 말할 사람도 없으니 혼자서 이야기를 나눈다. 나눈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으니 나눈다는 표현도 그리 틀린 것 같지는 않다. 산책로가 아니라 사색로다. 그 옛날 칸트가 왜 그렇게 혼자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했는지 알만하다.

가까이는 지난주부터 멀리는 아주 어린 시절 일까지 하나 둘 떠오른다. 잘못된 일, 재미났던 일, 그때 친했던 친구들,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 이르기까지 별의별 생각들이 다 떠오른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직장을 얻고 나서 자연스럽게 주위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 덜컥 겁이 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다. 사귀던 사람은 있었지만 아직 결혼까지 생각할 단계는 아니었고 더더욱 나 자신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무엇보다 결혼은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걱정이 되었다. 나는 흔히 RP(망막색소변성증)라고 불리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 명확하게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유전일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다.

시각장애인으로 산다는 것. 어린 시절, 수도 없이 되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야 했을까?' 아마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겪었을 것이다. 이 세상에 나만 이렇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홀로 외로이 싸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그 어떤 도움 따위 받고 싶지도 않은 그런 시간들. 아직 다 살지는 않았지만 나는 내 인생을 구분하라면 아마 3단계로 구분할 것 같다.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던 시절, 시각장애인이었지만 나 스스로 부정하며 살았던 시절, 그리고 장애인임을 받아들이고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고 난 이후의 삶이 바로 그것이다. 장애를 받아들이기까지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다.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나 자신을 소심하게 만들고 작은 말에도 상처 받게 했다. 남들보다 더 노력해도 얻어지는 것은 터무니없이 적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것 같았다. 아주 어렸을 때는 그저 눈이 좀 나쁜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줄고 눈이 빨리 피로해졌다. 그때는 그저 내가 체력이 약해 집중할 수 없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다. 내가 장애인이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적도 없었다.

완만한 오르막길이 펼쳐진다. 산책로에서는 대부분 걷는다. 뛰는 사람은 별로 없다. 뛰는 사람들은 주로 유니폼을 갖춰 입고 정말 마라톤 선수처럼 뛴다. 뛴 사람은 뛰고 걷고 싶은 사람은 걷는다. 어떤 아이는 아빠에게 안겨서 산바람을 쐬고 강아지 목줄을 잡고 걷는 사람

들도 더러 있다. 각자가 각자의 속도로 갈 뿐이다.

대학에 들어갈 때쯤 내 눈으로는 이공계를 전공해도 취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실은 어렸을 때도 내 병에 대해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설마 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정도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생명공학을 전공하려고 했던 내 꿈은 더 이상 뻗어갈 수가 없었다. 다 합격한 학교를 포기하고 등록금을 받아오던 날 서울 하늘은 눈물겹도록 청명했다. 서울역에서 집으로 가는 기차를 탔을 때 다시는 서울에 올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이듬해에 전공을 바꿔 국문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인생 패배자처럼 시와 소설 속으로 도피했다. 책을 읽기에는 불편한 눈이었지만 되는 대로 책을 읽고 수시로 시며 소설을 썼다. 직업을 갖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고 더욱이 내가 그것을 포기한 지 오래되었다. 그저 글이나 쓰면서 소득이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나 살 것이라며 자포자기했다.

그런데 기회는 오히려 눈이 잘 보일 때보다 책을 읽을 수 없을 만큼 나빠져 장애등록을 하게 되었을 때 찾아왔다. 지역에 있는 시각장애인협회에 등록을 하고 그곳에서 눈이 아닌 귀로 책을 보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이다. 게다가 공부도 계속 할 수 있고 공무원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당장 고시학원으로 달려갔다. 상담을 받은 결과 보통 일반인들은 2년 정도 공부하면 합격권에 들 수 있다고 했다. 장애인인 채용비율에 3% 이내로 뽑고 있으며 특별히 중증과 저증을 나누지는 않는다고 했다.

내가 막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시각장애인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텍스트도서가 있는 지도 몰랐고 있다고 해도 그 동안 눈으로 책을 보며 살아왔기 때문에 스크린리더에 적응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책을 볼 수가 없으니 남들보다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 노력이 필요했다. 나는 4년을 예상했었다. 남들보다 두 배 더 걸려서 합격한다고 해도 합격하기만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또한 스크린리더도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은 필요할 것이었다. 나는 내 속도로 걸겠다. 남의 눈치 안 보고 남들이 뭐라 하든 내 페이스대로 가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난 지 정말 딱 2년 만에 공무원이 되었다. 나도 놀라웠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숨이 가빠온다. 경보하듯 빠른 속도로 걷다 보면 다리에 조금씩 통증이 오기 시작한다. 이때 멈추면 안 된다. 통증을 참고 더 걸어가면 어느새 통증이 사라진다. 그 뒤로 걷는 것은 그리 힘들지 않다.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같은 속도로 걷는다. 앞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길을 막듯 하며 걸어온다. 이때는 얼른 유도블록 위로 가서 걸으면 된다. 원래 유도블록은 밟지 않는 것이지만 블록 위로 걸어가면 다른 사람들과 부딪치지 않고 지나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게는 그저 다른 사람들 이야기처럼 들렸다. 무엇보다, 내 아들이 나처럼 태어난다면 이 땅에서 또 한 명의 시각장애인으로 한 세상을 살아내야 한다면 나는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인가? 힘들고 모진 시간은 나 하나로 족하다. 그것마저 물려줄 수는 없지 않은가? 설사 운이 좋아 정상인으로 태어난다 해도 장애인아버지를 둔 자식이 겪어야 할 고난 또한 만만치 않으리라.

산책로를 걸은 지 한 시간이 지났다. 잠깐 멈춰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본다.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작은 고개 몇 개쯤 넘어온 듯하다. 이제 겨우 절반이다. 아직도 한 시간은 더 걸어야 한다. 내 삶은 아직 절반도 이르지 못했다. 순간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해본다. 그리고 다

시 뒤를 돌아본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지금 나는 떳떳하게 공무원이 되어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누구나 놀랄 만큼 힘들도록 노력해서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은가? 아직 나는 다 살아내지 못했다. 아직 길은 절반이 넘게 남았다. 저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누구도 알 수 없다. 내가 공무원이 되는 것도 불과 몇 년 전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어쩌면 아주 조금은 세상이 바뀐 것은 아닐까? 문득 새로운 목표가 생긴 듯하다. 내 아들이 나처럼 태어난다면 나는 더욱 열심히 살아서 내 아들이 걸어갈 길에 조금이나마 유도블록이 되어주어야 한다.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그만한 일을 해줄 수 있다면 더한 기쁨이 또 어디 있겠는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저는 나중에 커서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삶은 성공한 삶이 아닐까? 그 목표라면 내 남은 절반의 길을 더욱 힘차게 걸어갈 수 있을 것만 같다.

시험 준비를 할 때는 오로지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모든 고민이 해결 될 것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목표를 이루고 나면 왠지 모를 허전함이 사람을 좀 쓸쓸하게 한다. 그 동안 내가 뭔가 허전하다고 느낀 것은 아마도 목표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으리라. 이제 내 안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다시 한 시간 걸어가야 끝이 나온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이를 악문다.

~~~~~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11월 16일~11월 30일]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

##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69)

### 1) '할리우드 액션'의 순화어: 눈속임짓

할리우드 액션은 '상대방이 반칙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부러 넘어지거나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심판의 눈을 속이는 행동'을 뜻한다.

축구 경기에서 선수끼리 몸싸움을 하다 넘어졌을 때 누구의 반칙인지 구별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제 아무리 숙련된 심판도 선수의 교묘한 속임수 동작을 늘 잡아내기는 힘들다. 마치 얻어맞거나 걷어차인 양 얼굴을 감싸고 그대로 주저앉는 '연기'로 심판의 눈을 속여 실제 우승을 따내는 경우도 있다. 한 선수는 골대 앞으로 달려오는 상대 선수와의 몸싸움 도중, 갑자기 발목을 부여잡으며 쓰러졌다. 이 때문에 상대 선수의 반칙으로 판정되어 골을 넣기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었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눈속임 짓으로 밝혀져 경고를 받았다.

미국 농구 경기에서 처음 나온 할리우드 액션이란 말은 반칙을 하는 선수를 비꼬기 위해 사용한 말이라고 한다. 물론 농구나 위에서 말한 축구뿐만이 아니다. 다른 여러 종목의 경

기에서도 눈속임 짓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며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심판의 오심으로 승패가 바뀌기도 한다. 그러나 관중에게 진정으로 사랑을 받는 선수는 규칙을 준수하며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다.

**-예시**

- ㄱ. A선수는 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다른 선수에게 추월을 당한 직후 팔을 들고 어깨를 으쓱거리는 눈속임짓(할리우드 액션)으로 심판의 눈을 속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 ㄴ. B선수는 축구경기에서 상대의 공을 다리에 맞고도 얼굴에 맞은 것처럼 고통을 호소하는 눈속임짓으로 페널티킥을 유도했다.

**2) '올인'의 순화어: 다결기**

올인은 '한 곳에 다 거는 것'을 뜻한다. 원래 도박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돈을 모두 거는 행위'를 뜻하던 말이 지난 2003년 도박사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 '올인'이 인기를 끌면서 대중에게 급속히 퍼졌다. 이 말은 그 후 '어떤 것에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쏟아 붓는 것'을 가리키는 상황에서 두루 쓰이는 말로 자리 잡았다.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배수진'과 비슷한 의미로 올인이라는 말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쓰는 '총선 올인', '올인 전략' 등도 '총선 다결기'나 '다결기 전략'처럼 다듬어 쓸 수 있다. 올인을 다듬은 우리말 다결기는 도박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어떤 값진 일에 쓰이면 좋을 것이다.

**-예시**

- ㄱ. 정치권은 선거 운동 첫날, 장터 민심잡기에 다결었다(올인했다).
- ㄴ. 수시 전형에 응시하지 않는 수험생은 정시에 다결기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홈페이지)/www.malteo.net

~~~~~

▶시각장애 관련 기관, 단체 소식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ARS 02-2092-9000 혹은 1577-6655 주간지란의 KBU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